

신인철학의 우주자연관의 역사적의의

채 주 연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성, 로동계급성의 원칙과 함께 역사주의적원칙에 철저히 서서 우리 나라의 선진사상을 높게 평가하고 민족문화유산을 비판적으로 계승하여야 합니다.》(《김정일전집》 제5권 243페이지)

신인철학은 1920년대에 리돈화에 의하여 제기된 대표적인 조선근대철학사상조류의 하나이다.

주체적방법론에 기초하여 신인철학의 우주자연관의 역사적의의에 대하여 정확히 분석평가하는것은 우리 나라 근대철학사상사발전의 합법칙성을 옳바로 파악하는데서 중요한 문제의 하나로 나선다.

우주자연관은 신인철학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며 인생관, 사회관, 개벽관, 도덕관의 세계관적기초를 이루고있다.

신인철학의 우주자연관은 당시의 조건에서 일정하게 의의를 가지였다.

신인철학의 우주자연관의 역사적의의는 무엇보다먼저 동학의 지기일원론에 내포되어 있는 신비주의적요소를 현저히 극복하였다는데 있다.

동학의 지기일원론의 원리는 한마디로 말하여 세계의 시원, 본질이 지기이며 세계의 모든것이 지기로 이루어지고 지기자체로 끊임없이 운동변화한다는것이다.

신인철학은 바로 동학의 지기일원론으로부터 출발하고있으며 그것을 계승하였다.

그러나 신인철학의 지기일원론과 동학의 지기일원론은 그 원리적내용에서 근본적인 차이를 가지고있다. 그것은 한울에 대한 견해에서 뚜렷이 찾아볼수 있다.

동학의 지기일원론에서는 한울을 신비화한데로부터 그것을 모든것의 창조주, 주재자로, 전지전능한 존재로 인정하였다.

물론 동학은 그리스도교나 이슬람교에서처럼 한울이 천지만물을 창조하고 지배하는 존재라고 하는 사상을 뚜렷하게 표현하지 않고 단편적으로 극히 미미하게 제기하였다. 그러나 동학은 한울에 의하여 만물이 창조되고 운동변화한다고 하는것을 부정한것이 아니라 긍정하였다.

동학은 한울을 만물의 창조주, 주재자로 인정하였을뿐아니라 모든것을 다 알고 다 할수 있는 존재로 인정하였다.

동학은 천지자연의 모든 조화를 한울과 결부시켰으며 한울을 세상에서 가장 우월하고 신성한 존재로 내세웠다.

동학의 지기일원론은 한울에 대한 리해에서 그것을 초자연적이고 초인간적인 존재로 본것이 아니라 우주자연, 천지만물에 해소시키고 귀속시킴으로써 범신론적성격을 나타내였다.

이와는 달리 신인철학의 지기일원론에서는 한울을 자연적인 한울, 우주의 본체, 시공간적형식으로 인정하였다.

신인철학은 《한울의 개념은…우주전체를 상상하여 이르는 말》(《신인철학》 3페이지), 《우주의 근본은…평등일여한 한울》(우와 같은 책 31페이지)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지기의

활동은…한울의 본질이 된것이다.》(우와 같은 책 34페이지)라고 하였으며 《지기본원 즉 한울》(우와 같은 책 35페이지)이라고 하였다.

여기에는 한울에 대하여 그것을 우주의 근본, 본체, 지기의 본원으로 보는 신인철학의 견해가 담겨져있다.

신인철학은 바로 공간적으로 무한하고 시간적으로 무궁하다고 보는 우주전체를 한울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우주전체 즉 한울의 실체를 지기라고 하였던것이다.

결국 신인철학에서는 우주이자 한울이고 한울이자 지기이며 지기이자 우주라고 말할 수 있다.

신인철학은 무한무궁한 시공간적형식으로서의 한울에 대하여 그것을 량적한울이라고 하였으며 지기로 이루어진 한울에 대해서는 그것을 질적한울이라고 하였다. 뿐만아니라 한울 즉 우주가 공간적으로 무한하고 시간적으로 무궁하다는것을 여러 측면에서 증명하려고 하였으며 공간적무한성과 시간적무궁성을 한울의 속성, 《지기본성》이라고 하였다.

신인철학에 의하면 한울은 공간적으로 무한하고 시간적으로 영원한것이므로 오직 하나이며 절대적존재이다.

신인철학은 한울을 만물의 최고주재자, 인격적신으로 리해한것이 아니라 자연적존재, 우주로 리해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신인철학은 《〈한울〉이라 함은 인격적신을 가리켜 하는 말이 아니라 부분에 대한 전체이라는 의미이며 소아에 대한 대아라는 이름이다.》(우와 같은 책 2페이지)라고 하였다. 그리고 《본체적한울은 만물의 원인이 된다. 그러나 이것이 인격적신과 같이 의지를 가지고 만물을 창조하였다는 말이 아니다. …만물이 한울에 의하여 존재한다 할지라도 그렇다고 하여 만물이 한울로부터 피창조된자는 아니다. 만물은 다못 한울의 자률적창조성으로 말미암아 한울스스로의 표현인것이다.》(우와 같은 책 5페이지)라고 하였다.

신인철학은 한울을 자연적인것으로 보면서도 그것을 신비화하는 립장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불철저성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신인철학은 우주자연에 대한 견해에서 동학의 지기일원론에 내포되어있던 신비주의적요소를 눈에 띄게 극복하였다.

신인철학의 우주자연관의 력사적의의는 다음으로 당시까지 도달한 자연과학의 성과에 기초하여 일련의 긍정적인 견해들을 내놓음으로써 근대철학의 면모를 보여주었다는 데 있다.

우리 나라에서 근대는 19세기 60년대부터 시작되었다.

근대시기 우리 나라에서는 위정척사론과 동학, 개화사상과 애국문화계몽사상을 비롯하여 여러가지 사상조류들이 발생발전하였다.

이러한 철학사상조류들은 당대 사람들의 지향과 사회력사적조건을 반영하여나왔으나 근대철학사상으로서의 면모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였다. 그것은 이 시기 우리 나라에서 자본주의적발전이 미숙하였을뿐만아니라 봉건적인 관계가 적지 않게 남아있었던 사정과 관련된다.

이로부터 신인철학이전시기 철학사상조류들은 봉건통치배들과 외래침략자들을 반대하고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과 우리 나라 력사발전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중세철학사상의 요소를 적지 않게 나타내었다.

더우기 이 시기로 말하면 우리 나라가 봉건중세로부터 근대로 넘어오던 력사적시

기였다. 그런것만큼 신인철학이전시기의 철학사상조류들은 주로 사회력사관과 관련한 문제들에 대해서만 논의하고 우주자연관과 관련한 문제는 많이 논의하지 않았던것이다.

전병훈이나 박은식과 같이 일부 우주자연관에 대하여 관심을 돌리고 논의하는 경우에도 중세철학에서 제기된 우주자연에 대한 견해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였을뿐아니라 그것을 거의나 그대로 따랐다.

이와는 달리 신인철학에서는 우주자연관에 대한 연구를 중요한 문제로 제기하고 깊이있게 전개하였는데 그것을 우주폭발설과 태양계형성과정을 비롯한 근대철학의 연구성과에 기초하여 진화론적으로 설명하였다.

신인철학은 식물계와 동물계를 비롯한 생물계에 대해서도 진화론에 의하여 설명하였다.

신인철학에서 새롭게 주목되는것은 바로 진화설을 진리로 인정하고 우주세계의 다양한 사물현상들의 발생발전을 진화설에 의하여 설명한것이였다.

신인철학은 《...진화론은 우주에서 일대 진리라 이르지 아니치 못할것이다.》(우와 같은 책 11페이지)라고 하면서 량적한울이 여러가지 특징을 가진 각이한 단계를 거쳐 발전하여온데 대하여 진화론적으로 설명하였다.

신인철학에 의하면 자연계의 특징, 식물계의 특징, 동물계의 특징을 가진 다양한 사물은 다 량적한울의 진화발전과정에 발생한것이며 그것이 한울, 우주세계를 이루는 부분으로 된다.

신인철학은 한울, 우주는 다양한 천지만물이 발생하기 이전에 먼저 존재하였는데 이때에는 그 어떤 사물도 없고 오직 하나의 지기만이 꼭 들어차있었으며 이것이 오랜 세월 변화발전하는 과정에 오늘과 같은 구조를 가진 우주세계가 이루어지게 되었다고 하였다.

신인철학은 외형적으로 보면 천만가지의 각이한 특징을 가진 사물이 존재하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전 우주에 하나의 지기만이 가득차있다고 하였다.

신인철학은 진화와 관련된 자기의 주장을 수운주의진화설이라고 하였다.

신인철학은 이와 함께 다양한 천지만물로 이루어진 세계가 하나의 시원인 물질로부터 진화하였다고 하는 과학적진화설 즉 유물론적진화설에 대하여서도 인정하였으며 우주폭발설, 생물유기체의 진화발전과 관련되는 우주진화설, 생물진화설들에 대하여서도 비교적 상세히 언급하였다.

신인철학은 과학적진화설, 유물론적진화설에 대하여 시인하면서 수운주의진화설과 과학적진화설이 결코 꼭같은것이 아니며 차이점을 가지고있다는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신인철학에 의하면 수운주의진화설은 본체적진화설이며 과학적진화설은 작용적진화설이다. 본체적진화설은 본체로부터 작용에 이르기까지 다 포괄하고있으며 따라서 작용적진화설을 자체안에 포섭한다.

신인철학은 수운주의진화설의 본질과 특징이 부분과 전체(개체와 전체)를 명백히 가르고 전체로부터 개체가 발생한것으로 본데 있다고 하였다. 신인철학에 의하면 개체로부터 전체가 발생한것이 아니라 전체 즉 한울로부터 필연적으로 구체적인 사물이 발생하였다.

신인철학은 물리학과 인체해부생리학, 화학과 수학 등 근대자연과학의 연구성과에 기초하여 세계의 시원, 본질과 운동변화를 비롯한 철학적견해들을 내놓았다.

신인철학은 지기를 세계의 시원, 본질로 보았으나 지기의 성질을 의지적이고 신령스

려운것으로 리해하지 않고 생명(생명력, 생명적활력)으로 리해하였다.

신인철학에 의하면 지기는 물질과 정신의 근본바탕으로 되는 본체로서 생명(생명력, 생명적활력)을 본질적속성으로 하고있다. 그리고 물질과 정신은 지기의 본질적속성으로서의 생명이 발현된 두 현상이며 천지만물과 여러가지 의식현상은 물질과 정신의 각이한 표현으로 된다.

신인철학은 지기의 속성인 생명이 한편으로는 심(의식, 정신)의 측면에서 끊임없이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면서 수많은 종류의 의식, 정신현상을 일으키며 다른 한편으로는 물질적인 측면에서 여러가지 모양을 가진 다양한 사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신인철학에서는 자연의 다양한 사물현상, 우주만물이 물질적인것도 아니고 정신적인것도 아니지만 물질적인것인 동시에 정신적인것으로서 생명을 속성으로 하고있는 하나의 지기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지기로부터 발생하였다고 인정하였다. 여기에는 물활론적요소가 담겨져있다.

신인철학은 우주자연의 운동변화를 자기 원인과 자기 법칙, 질서에 따라 스스로 진행하는것으로, 끊임없이 향상하고 상승하는것으로 리해하였다.

뿐만아니라 본체와 현상, 전체와 개별의 호상관계 등 일련의 철학적견해도 제기하였다.

물론 신인철학은 우주자연관을 근대철학의 웅당한 높이에서 풍부하게 과학적으로 원만히 전개하였다고는 볼수 없다.

신인철학은 이론적으로 미숙하고 시대적 및 계급적제한성을 가지고있지만 조선근대 철학사상사발전의 견지에서 볼 때 당시로서는 일정한 의의를 가지였다.